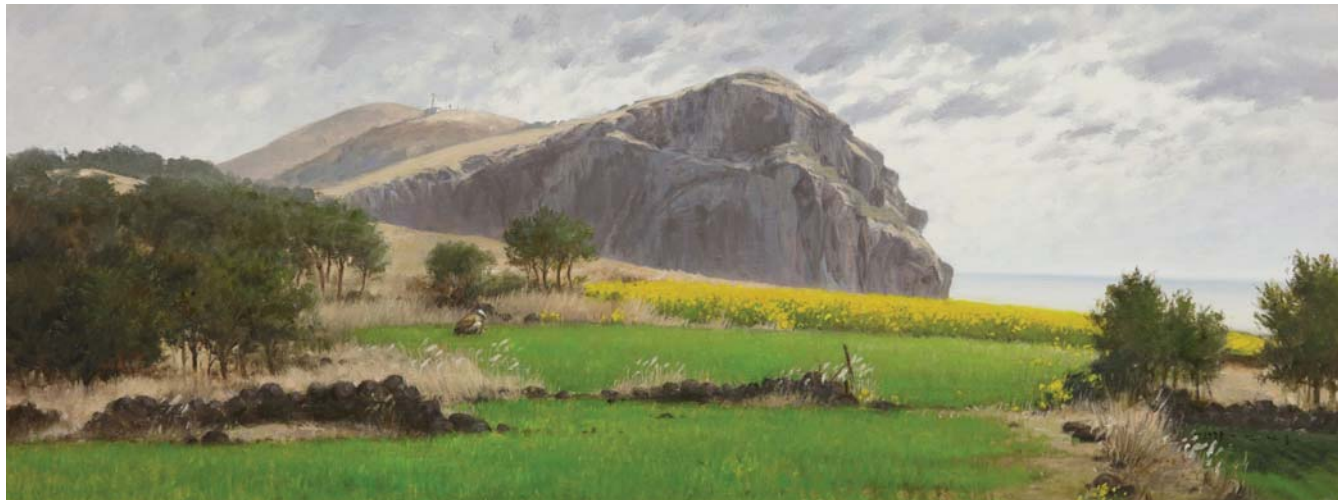




# 10개 문화 공공기관 소장품 새봄처럼 햇빛

### 도립미술관 '탐나는 봄' '봄' 담은 소장품 60여 점 작고 작가에서 신예까지 '작품 수집방향 공유 기대'



기당미술관 소장 김남홍의 '우도의 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 10개 문화 분야 공공기관에서 소장한 미술품이 새봄을 그리며 마음을 담아 한자리에 모인다. 제주도립미술관이 기획한 '탐나는 봄-흔디 손심어 만나는, 제주의 봄'을 통해서다.

'탐나는 봄'은 중의적이다. 제주의 옛 이름인 탐라(耽羅)의 아름답고 싱그러움 봄을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기는 모습을 그리워하고 탐(貪)한다는 뜻으로 제목을 붙였다.

코로나19 시국에 새봄은 희망의 다른 말일 것이다. 도립미술관은 이번에 공공기관이 간직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봄 풍경이나 봄의 의미를 전하는 소장품을 고집해왔다.

참여 기관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문화재단,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문화예술포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이중섭미술관이다. 이곳에서 강운, 김순남, 김용철, 김창열, 김창하, 김택화, 나강, 박광진, 현중화, 중광 등 38명의 작품 64점이 나왔다.

기획전시실(1)과 시민갤러리에 놓이는 작품들은 '흐느다', '물들다', '노닐다'로 나누어 다가오는 봄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작고 작가에서 청년 작가까지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서예 등 여러 빛깔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도립미술관은 이 전시에 대해 "처음으로 제주도 공공기관의 소장품만으로 전시를 기획했다. 이것은 여러

기관과 협업하는 기회와 대외경쟁력 확장을 위한 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각 기관과 소장품 수집방향을 공유하고 소장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이달 16일부터 5월 2일까지 계속된다.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문의 710-4273.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이 합동 연주를 펼치고 있다.

## 제주예술단 정기회원제 유명무실

### 2006년부터 도입해 운영 유료 공연 관객 개발 취지 2019년엔 18명까지 줄어 작년 코로나로 가동 멈춤

제주도립 제주예술단(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의 정기회원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원 수가 20명에도 못 미치는 등 이름뿐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예술단이 2006년 9월부터 도입한 정기회원제는 공연 유료화에 맞춰 관객을 개발하고 예술적 책임에 맞는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책정된 연회비는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을 합쳐 일반·대학생 4만8000원, 청소년 2만8800원이다. 1년 동안 예정된 두 예술단의 정기공연 횟수에 유료 입장료를 곱해 20% 할인된 금액을 연회비로 정했다. 정기회원들에게 제주예술단 연주회 홍보물 발송, 공연 당일 회원 전용 티켓 수령 창구 운영 등을 시행해 왔다.

제주예술단은 방문 접수나 인터넷을 이용해 연중 수시로 정기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운영 기간은 해당 회원의 가입일 다음달부터 1년간이다. 2021년 2월에 가입하면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주예술단 정기회원의 효력이 지속되는 방식으로 1년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이같은 정기회원제는 운영 초반 '반짝' 관심이 높았지만 갈수록 열기가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2014년의 경우 그해 2월 기준으로 제주교향악단·합창단의 정기회원 수는 131명이었지만 몇 년 새 약 10분의 1까지 줄었다.

제주예술단에 따르면 연도별 정기회원 수는 2017년 20명, 2018년 18명, 2019년 18명으로 가동을 거의 멈춘 상태다. 정기회원 초청 음악회를 기획했다가 그 수가 너무 적어 무대를 취소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현장 공연이 대부분 중단된 2020년에는 제주예술단에서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현재 제주예술단의 정기회원 수는 전무하다.

정기회원제로 대표되는 관객 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객석 점유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2019년 2월 발표한 '제주도립예술단 활성화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정기공연에 한해 객석 점유율을 조사했더니 제주교향악단 32.7%(평균 387명), 제주합창단 28.3%(평균 335명)였다. 특히 제주교향악단은 서울 교향악축제 등에 출연하며 역량을 드러내는데 비해 관객 비율이 미미했다. 당시 제주도립무용단을 제외한 음악 분야 4개 공립예술단 객석 점유율이 대동소이했는데 이후에도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주예술단 정기회원제는 도내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제주도 문화사랑회원에 비해 장점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가입비가 무료인 문화사랑회원은 공연장 기획 프로그램의 관람료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15일 현재 3개 공연장 문화사랑회원은 7만4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제주예술단 사무국 측은 "정기회원 혜택이 예술단 정기공연 할인 밖에 없어서 도민들이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예술단만의 이점을 살리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 서귀포시 3개 미술관 대표작가 조명

### 변지서·현중화·이중섭 디지털 아카이빙 추진 공동 기획전·마케팅도

은 내용으로 '미술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운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등 3개 미술관의 2021년도 전시·운영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시민과 가까이, 역사를 담아 문화를 꽃피우는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을 슬로건으로 미술관을 꾸려간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 스

마트미술관 구축, 제2회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과 서귀포 대표작가 조명전 개최, 365일 미술관 안심관람 환경 만들기, 테마가 있는 미술관 전시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스마트 미술관 구축사업은 문화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다. 3개 미술관의 '킬러 콘텐츠'이자 서귀포를 대표하는 현중화·변지서·이중섭의 작품과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오디오·영상 제작에도 나선다.

미술관 연계 공동기획전과 미술관

별 대표작가 작품전은 제주를 사랑한 작가와 작품 세계를 기획전시와 세미나를 통해 조명하는 자리다. 상반기 중에는 대표작가 작품 구입을 위한 예산 3억1000만원도 투입될 예정이다. 미술관 3개소 통합 '공립미술관 문화관광 벨트' 조성도 꾀한다.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3개 공립미술관 연계 활성화 사업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공립미술관 연계 공동 기획전 '서귀포에 바람'을 3개 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 한 장으로 읽는 국가무형문화재

### '제주민요' 등 48종목 수록 교육용 활용 전자책 발간

무형문화재'를 발간했다.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개요와 간략한 소개, 내용과 특징, 해당 종목이 오늘날 가진 역할과 가치 등을 한 장으로 정리했다. 이번에는 전통 공연·예술 분야를 수록했고 향후 연도별 의례·의식과 전통 지식·생활관습 등 분야, 전통 기술 분야로 나눠 차례로 펴낼 계획이다.

'신명나는 무형문화재'라는 부제가 달린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



'제주민요' 시연 장면

다. '제주민요'는 노동요, 유희요, 의식을 통칭하는 종목으로 여성이 창자인 노래가 많고 민요 사설에 쓰인 제주방언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전자책 발간을 통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 등에서 우리 전통문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www.ih.a.go.kr)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전선희기자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 농작업 편의장비사업은 대륙기계와 함께

확장  
이전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들 제주총판

DLK21TRC-HS  
(20.5마력)

DLK13TRC  
(14마력)

DLK14TRC  
(16마력)

DLK18TRC  
(18마력)

MX-E350 (전동형)

MX-500DL (레도형 덤프+리프트)

MX-500 (레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FELCO 801  
#24 #25 #26 30mm

FELCO 811  
#24 #25 #26 40mm

FELCO 820  
#24 #25 #26 45mm

무선전동가위

선별기

서귀포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원 방향 300m) T. 064)767-3430 | 제주시 봉개대륙기계 M. 010-2611-4686